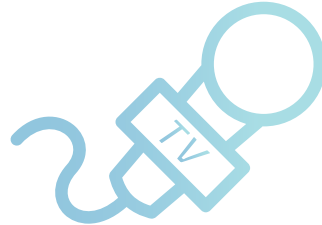


재벌 인터뷰 하다 날아온 어깨빵, 몸은 밀려났지만 질문은 놓지 않았다



MTN

김주영 기자



법원 앞은 늘 비슷한 풍경이 반복된다. 판결이 끝나면 문이 열리고, 취재진은 일제히 앞으로 쏠린다.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엉키며 누군가는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몸을 밀어 넣는다.

2019년 6월13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마잡이(마이크잡이)’를 하게 됐다. 취재 현장에서 마이크를 대신 잡아주는 역할. 보통은 현장에서 만난 기자들이 협의해 질문을 모으고 한 두사람에게 마잡이를 부탁한다. 혹은 먼저 현장에서 자리를 잡은 기자가 맡기도 한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법원 출입문이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취재진이 뿔뿔이 흩어졌고, 내가 서 있던 문 앞에는 기자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그리고 곧 한진가의 ‘이명희(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조현아(전 대한항

공 부사장)’ 모녀가 재판을 마친 뒤 그 문으로 나왔다.

체구가 왜소한 여기자 한 명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순간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질문들은 나를 향해 모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주변에 놓여 있던 마이크들을 모두 쥐었다. 하나, 둘, 셋, 넷. 금속의 무게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상하게도 그 무게는 부담이 아니라 책임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대로 이명희 씨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다. “선고 결과 만족하십니까?” “반성하십니까?”

짧은 질문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사건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 더 또렷한 답을 듣기 위해서였다.

그 순간이었다. 법원 안으로 들어갈 때
까지만 해도 정제된 태도를 유지하던 그
는,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매우 당당해 보였다. 국적항
공기로 해외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기
소된 데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나
온 직후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는 몸에 힘을
가득 실어 기자의 배와 옆구리 부분을 향
해 어깨빵(?)을 날렸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몸이 크게
흔들렸다. 통증보다 먼저 올라온 감정은
의외로 단순했다.

‘여기서 물러설 것인가.’ ‘나는 여러
언론사의 마이크를 책임지고 있다.’ ‘기자
가 돼서 어깨빵에 좌절할 것인가.’

수많은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나
는 몸을 휘청이다 중심을 겨우 잡았다. 그
리고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상속세 재원
해결 계획 세우셨나요?”

목소리가 흔들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
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질문을
멈추는 순간, 나는 스스로 그 자리를 포
기하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의 장면은 이후 뉴스 외에도 여러
영상과 기사로 소비되었다. ‘재벌이 집행
유예를 받고 나와 당당히 취재진에 어깨
빵을 날렸다’는 식의 표현도 뒤따랐다.

데스크에게 혼이 날까봐 현장에서 있
었던 물리적 충돌을 보고 하지 않았는데,
많은 언론에 전파되면서 뒤늦게 데스크가
몸은 괜찮냐며 걱정을 해주었던 점도 기
억에 남는다.

나에게 그날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
다. 그것은 ‘권력과 질문’이 마주하는 지
점이었고 그 사이에 서 있는 기자의 역할
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순간이었다. 질문
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질문이 어디에서 멈추게 되는지를 몸으로
확인한 것이다.

취재 현장에서 질문은 언제나 환영받
는 존재가 아니다. 특히 상대가 권력을 가
지고 있을수록, 질문은 불편함이 되고, 때
로는 밀어내야 할 대상이 된다. 그날 내가
겪은 일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다.

하지만 그 경험은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내 취재 방식에 분명한 변화를 남
겼다. 이전에도 현장에서 물러서는 편은
아니었지만 나는 한 가지를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질문은 기자에게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이었다.



인터뷰 중 밀려난 김주영 기자. 비디오머그

이 사건 이후 나는 항공 출입기자로서 대한항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한층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기업 내부의 문제, 조직 문화, 사건의 맥락을 꾸준히 추적했다. 단발성 이슈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재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여러 제보를 접했고, 실제로 의미 있는 기사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특히 대한항공 소속 조종사들이 호주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주먹다짐을 했다는 단독 기사를 쓴 것이 기억에 남는다.

대한항공 기장과 부기장이 인천-브리즈번 운항을 마친 뒤 현지에서 머무르는

‘레이 오버(Lay-over)’ 기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이견이 빚어져 서로 폭행을 했고 호주 현지 경찰과 구급차까지 출동했다는 내용이 었다.

폭행에 연루된 기장과 부기장은 각각 면직됐고 징계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통해 세계 10위권 ‘메가캐리어’로 비상하겠 다며 조직 관리에 신경을 썼던 한진그룹 이 보다 엄격히 처벌을 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개인의 행동은 결국 조직의 얼굴이 되고, 조직은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취재 관련 비하인드로는 독자들이 메일을 통해 보내온 질문이 대체로 비슷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누가 찬탄(탄핵 찬성)이고 누가 반탄(탄핵 반대)입니까?” “부기장이 먼저 선빵(?) 날린거 맞나요?” “누가 이겼나요?”

누가 선빵(?)을 날렸는지 누가 찬탄이 있는지 나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에 승자는 없었다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당사자 모두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됐고 면직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취재에 따르면 대한항공 기장과 부기장은 비행을 마친 후 호텔에서 와인을 곁들인 술자리를 가지며 허심탄회하게 나라 걱정을 하다가 갑자기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한다. 폭행은 분명 잘못됐고 정당화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애국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화는 비단 조종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정치 이야기는 민감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관심있어 하는 이슈이기도 해서 친구, 가족, 지인 사이에서 종종 대화 소재로 쓰이곤 한다.

이 사건 이후 되도록 정치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고, 상대의 의견도 존중해주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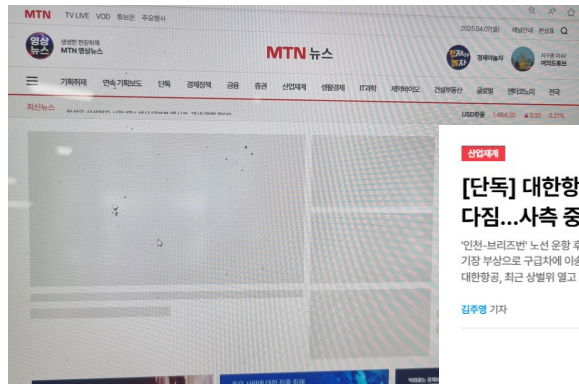
해당 취재와 관련된 또 다른 에피소드는 이 기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몰리면서 MTN 창사 이후 처음으로 서버가 다운됐다는 점이다. 기사로 일하며 가장 기쁜 순간은 세상을 좋게 변화시킬 때인데, 회사의 서버 투자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들었다.

또한 이 기사를 취재하면서 곳곳에 정말 많은 질문을 했던 점도 기억에 남는다. 평소 잘 알고 지낸 취재원들에게 “계엄 얼마 후 있었던 일이죠?” “경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마무리 됐습니까?” “승객 운항엔 차질이 없었습니까?” “징계 불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사자들은 어떠한 입장인가요?” 여러 차례 질문을 던지며 크로스체크를 했다.

사실 이 사건을 다른 기자들도 먼저 알고 있었다고 들었다. 그냥 루머일 뿐이라는 얘기도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지며 사실의 바다에서 헤엄친 결과 마침내 팩트를 거머쥐었다.

돌이켜보면, 수년 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그 충돌은 나를 멈추게 한 사건이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게 만든 계기였다. 오히려 취재를 밀어주는 힘이 되었다. 물

2026 기자의 세상보기



MTN 홈페이지가 서버다운 된 모습.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지난해 말 '인천-브리즈번' 노선 운항 후 호주 현지에서 체류하던 중 주먹다짐을 벌여 다음 운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이 사건에 대해 최근 중앙상벌위원회를 열고 관련자들에게 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한항공 '인천-브리즈번' 운항을 함께한 기장과 부기장이 도착 후 다음 운항까지 현지에서 머무르는 '레이오버(Lay over)' 기간에 호텔에서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폭행 사건으로 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적으로는 밀려났지만, 질문 만큼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던 경험이었다.

취재 현장은 늘 예측할 수 없다. 때로는 위험이 따르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버거운 순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누군가는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현장에서 질문을 던진다. 때로는 짧고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이 갖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그 질문은 법원 앞에서의 경험처럼 나 자

신에게도 계속 되묻는 질문이 되었다. '나는 지금 물러서지 않고 있는가.'

때로는 질문이 받아들여질지, 외면당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질문을 멈추는 순간 기자로서의 역할 역시 멈춘다는 사실이다.

그날 나는 몸으로는 밀려났지만, 질문 만큼은 끝내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나는 책임 있는 질문을 하는 기자로 남고자 한다. 🇵🇰

MTN 김주영 기자